

에베소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구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항구도시였기에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돈과 우상, 그리고 음란한 생활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했고 뜨거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고 에베소 교회는 점점 분열과 갈등으로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다시 에베소의 세상문화로 점차 미혹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은혜를 회복하라'고 촉구합니다. 지금 너희 삶과 교회의 문제는 상황이나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르칩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력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우린 예수께 이끌림 받고, 은혜가 사라지면 세상의 가치에 이끌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찬양, 예배할 때 우리 삶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질문) 여러분은 지금 은혜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은혜로 인해 회복되었던 경험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2. 이사야 30:19-21절은 '하나님의 은혜는 간섭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9절: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20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 '네가 말씀에 집중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1절: 그 말씀이 네 인생에 간섭해서 너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이나, 어떤 결정에 간섭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3.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내 일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구원일 수도 있고, 내 육신의 연약함 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만일 은혜의 물을 가득 준비하셨다면 나의 어떤 영역에 그 은혜가 부어지길 원하십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우리 개인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또 은혜는 우리 교회에도 필요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교회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목장 별로 우리교회 안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함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